

여수시, 내년도 국비 7천690억 확보...“현안 사업 추진 탄력”

호남권역 대응량포방사시스템 도입...재난 대응체계 구축 화태-백야도로·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 SOC사업 대거 반영

여수시가 2025년도 정부 예산에서 전년보다 305억원이 증액된 7천6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액 중심의 예산안 기조 속에서 거둔 역대 최고액으로 대형 SOC 사업과 재난안전, 문화·관광, 농림·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여수시는 국회 예산심사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여수국가산업단지 주요도로 개설' 등 신규 사업의 추가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SOC분야 국비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603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604억원)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80억원) 등이다.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광양항 낙포두 재개발 사업(464억원) ▲광양(여천)항 모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40



정기명(왼쪽) 여수시장이 지난 10월16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3억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52억7천만원) 등

이 반영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호남권역 대

응량포방사시스템 도입(22억8천만원) ▲급경사지(남면·소라지구)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11억5천만원) 등이 확보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9월 소방청과 '호남권역 대응량포방사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안부, 기재부, 국회 등에 도입 필요성을 지속 개진해 왔다.

이번 정부 예산 22억8천만원 반영으로 여수산단 외에도 호남권역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확보하고 폭우와 화재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2026여수세계박람회 국제행사 개최(23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

사업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박람회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32억원 증액을 추진했으나 반영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830여일 앞둔 섬박람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 추경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의 협력 덕분에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예산 반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군 '대숲맑은 담양쌀'이 올해 수출 300t을 기록한 가운데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들이 역대 최대 수출 달성 기념으로 담양쌀을 소개하고 있다.

대숲맑은 담양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프랑스·베트남 등 5개국에 300t...전년비 2배 ↑

영산강 시원지인 청정지역 담양의 '대숲맑은 담양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담양쌀은 프랑스, 베트남 등 5개국에 300t이 수출돼 2018년 개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담양쌀은 지난 4월 프랑스 현지 유통업체인 에이스푸드와 연간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베트남, 미국, 브

라질, 체코 등에 공급을 시작했다.

특히 11월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한국인 임직원 식량으로 100t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전년 12%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최고 실적을 견인했다.

이 같은 수출 호실적은 지난 2022년 준공된 담양군통합RPC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인증을 획득하며 까다로운 유럽 농산물 통관절차에 적합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도정 설비

를 갖춘 결과로 풀이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최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이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전 세계의 식탁으로 담양 농특산물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쌀은 2014년 대한민국 명품 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밥맛을 인정받았다.

/담양=정승균기자

장성 새빨간 '컬러플 사과' 시범 보급

새콤달콤 맛 장점...이달까지 2ha규모 보급·검증

장성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컬러플 사과(사진)' 시범 보급에 나섰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컬러플 사과'는 붉은색을 지닌 사과 품종인 양광과 천추를 교배해 만들었다. '컬러플'은 컬러(color)와 애플(apple)의 합성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외관

이다. 겉껍질이 매끄럽고 진한 붉은색을 지니 보기에 좋다. 품종의 특성상 부사 등 다른 사과보다 착색이 용이하다 보니 기후변화로 상품성이 떨어질 확률이 낮다. 색깔만큼이나 맛도 진하다. 크기는 약간 작지만 대신 짙은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장성군은 이달까지 2ha 규모로 '컬러플 사과'를 시범 보급해 기후 적응성과 신품종 확대 가능성 등을 두루 검증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어려운 사과농가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명품 장성사과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한강자 고향' 장흥 회진면, 노벨상 수상 기념 야간 조명 설치

내달 말까지 매일 오후 6시-오전 6시 점등

장흥군 회진면은 16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회령진성 일원에 야간 경관 조명(사진)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회진면은 한강 작가의 부모님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명 설치의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고 지역의 상징인 회령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회진면은 나무와 폭포 등 주요 지점에 LED 조경수 조명과 장식을 설치

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스러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관 조명은 내년 1월 말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점등되며,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인구 감소로 지역의 활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 조명 설치로 생동감 있는 거리가 만들어질길 바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장석 회진면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전 면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회진면이 노벨 문학도시 일번지임을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고흥군,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구축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20억 확보...생산 시설 현대화

고흥군은 16일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굴 양식 방식보다 폐기물과 부표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다수의 어가가 활용 가능한 공동 생산시설(중자 생산 시스템,

자돈선별기, 세척기 등)을 구축해 친환경 수산업을 촉진하고 생산 기반 시설을 현대화할 방침이다.

공동생산시설은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원 6필지(9천594㎡)에 조성된다. 이 시설에는 4천여개의 수조와 살균시설이 설치되며, 일반 굴의 노로바이러스 취약점을 제거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개체굴 생산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00t 이

상의 개체굴을 생산하고, 중국, 홍콩, 유럽, 미주 등으로 수출해 고흥산 개체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해 10월 지역 특산품 '고흥황금개체굴'의 상표를 출원하고, 수출주도형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고흥산 굴은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제 제22호로 등록된 상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친환경 개체굴 산업 전환과 수출 물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산망 구축을 통해 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기자

광양경제청, 日오사카서 투자유치 활동 전개

광양만권 물류 인프라 구축 3자 협약 체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단은 일본의 대표 물류 기업인 ㈜아스토 나카모토와 한국의 ㈜대우로지스틱스를 만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양만권에 부가가치 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KOTRA 오사카 무역관과 전남도 오사카 사무소를 방문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산업 현황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엔저 상황과 일본 기업의 투자 동

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남 지역으로의 투자기회 발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KOTRA는 적극 협력을 약속했으며,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기간 중 광양경

제청 홍보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남도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중권 광양경제청장은 "한일 대표 물류기업이 손을 잡은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양사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KOTRA 오사카 무역관, 전남도 오사카 사무소 관계자들이 16일 오사카에서 3자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 '신대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양육 부담 해소

순천시는 "최근 해풍면 신대출장소 2층에서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대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센터는 순천시의 다섯 번째 다함께돌봄센터로,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대다함께돌봄센터는 신대지구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과밀 문제를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터이자 학습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6-12세)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며, 운영 시간은 학기 중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순천시 관계자는 "돌봄수요가 많은 신대지구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는 이번 신대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양우내안에, 주암읍 오름, 이편한세상순천, 신매곡서한이 다음 등 총 5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다.

/순천=정기기자



순천신대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